

# 영농후계자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金 東 一

## 1. 영농후계자 육성과 새마을靑少年會

1970년대에 이르러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커다란 움직임은 농촌과 도시와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중요한 생산요소인 동시에 기본적으로 생산과 사회활동의 주체인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農業과 農村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농촌사회 내부의 문제보다는 농촌과 농업을 둘러싼 국민경제 또는 사회전반의 변화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농후계자의 육성을 위해서

는 이러한 국민경제와 사회가 농민들에게 農村에 남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농업의 주변 여건이 바뀌어지기 어렵다. 다만 農村靑少年들의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영농후계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하겠다.

농촌靑少年들이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삶의 질의 내용이 안정된 통로를 거쳐 고루 제공될 수 있는 기회나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나 장치로 대표적인 것

은 학교교육을 통하는 방법과 조직(組織)이나 집단을 통해 사회교육(社會教育)을 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를 영농후계자 육성이란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학교교육은 곧 農業系學校를 통한 교육을 말하며 사회교육의 예로는 새마을靑少年會를 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교진학은 직업선택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보다는 교육지위(教育地位)를 높이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농업계학교를 마친 후 얻게되는 교육적 지위(예: 졸업장)와 農業을 선택한 후에 얻게되는 농민의 사회적 지위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된다. 직업에 따른 사회적 지위는 그 사회, 그 국가 또는 시대(時代)에 따라 그때의 사회가 어느 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시대적 특성에 달려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위층의 관료(官僚)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농업계 학교의 졸업자가 곧바로 독립적인 경영주가 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고, 영세생업농(零細生業農)이 대다수인 농촌의 경제적 여건으로도 어려운 실정이다.

새마을청소년회 같은 조직을 통한 사회교육은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

이며 목표지향적(目標指向的)인 참여를 기대할 수가 있다. 더우기 이러한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기획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농후계자육성은 새마을청소년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 자신들도 당 연구원 조사(1980년 3월)에서 보면 응답자의 62.3%가 새마을청소년회의에서 영농지식이나 기술습득을 기대하였으며, 또 실제로 청소년회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회의 목표가 영농후계자 육성이나 소득증대(所得增大)의 실제적인 영농활동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1%로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청소년회에서 제시한 목표가 청소년회 활동을 통해 농촌청소년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새마을청소년회의 문제점과 活性化方案

### (1) 새마을청소년회의 문제점

새마을청소년회는 하나의 조직(組織)이므로 조직의 존속(存續)과 성장이 있을 때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즉 영농후계자 육성이란 목표를 달성할 기반을 갖는다. 새마을청소년회의 예전 형태인 4H구락부가 농촌청소년들이 없어 이름만 존

재하였던 것은 전전한 시민양성과 유능한 농민양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은 물론이려니와 4-H구락부의 존재와 활동마저 없었던 상태이다. 다행히 새마을청소년회로 바뀌면서 이동(里·洞)단위의 청소년회와 읍·면단위의 청소년회로 이원화가 되어, 22세부터 26세까지의 年長회원들로 조직된 읍면 단위의 청소년회는 조직의 구성원 확보나 활동이 4-H구락부 때보다 나아졌다고 하겠다.

청소년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새마을청소년회의 문제점으로는(당연구원 80년 3월 조사) 첫째, 형식적인 지도(20.6%)이다. 지도인력의 부족(9.7%)과 지도방향의 不在(12.8%)까지 합하면 조사대상자의 43.1%가 지도력, 지도체계, 지도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두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과제자금(課題資金)의 부족(20.1%)이다. 새마을청소년회의 주요활동이 과제활동인데, 아버지가 농가경영주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농과제에 필요한 물자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회원의 참여의식(參與意識)의 부족(15.2%)이다. 이 문제는 지도체계의 문제와 재원(財源)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영농기술을 습

득하고 장래의 농사의 역군으로 일하고 싶은 자들에게 과제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영농교육같은 목적에 맞는 교육을 위해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고 깨우쳐 줄 指導者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의 참여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認識)의 부족(12%)이다. 조직의 목적이 사회의 價値 및 규범(規範)에 맞아야 하고 나아가서 주위환경의 협조 또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조직은 존속하며 성장한다는 사실에서 새마을청소년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와 같은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이 농촌에게까지 세차게 밀려오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영농후계자가 되겠다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압박감이 주어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영농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얼마나 보람있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은 청소년회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 나타나는 데,

⊙ 영농후계자 육성방안 ⊙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가 청소년 회 활동에 많은 참여를 보인다. 청소년회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회 활동이 시간을 빼앗는다든지 또는 돈이 든다와 같은 활동 자체때 문인 경우도 있지만, 농사를 맡겨주고 싶지 않은 태서도 기인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는 방향에서 새마을청소년회를 활성화하면, 청소년회가 목표로 하고 있고 청소년 자신들도 기대하고 있는 영농기술습득같은 영농활동이 많아진다 하겠다. 즉 회원들 자신이 영농후계자라는 의식속에서 앞으로 영농정착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새마을청소년회 활성화방안은 영농후계자육성방안의 단기적인 대책이 된다.

(2) 새마을청소년회의  
활성화방안

새마을청소년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파악했을 때 활성화를 위해 첫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직의 목적이고, 둘째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의 구성원의 만족과 사기, 세째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자 내지 지도체계, 네째는 물질적 또는 재정적인 문제, 다섯째는 구성원의 자질을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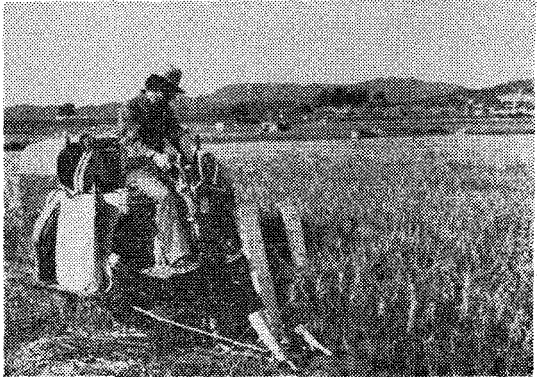
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내용, 그리고 끝으로 조직과 사회와의 관계향상 및 홍보활동을 들 수 있다.

(가) 새마을청소년회의

목적과 활동영역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새마을청소년회를 간주할 때, 새마을청소년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조직이기 보다는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직이어야 한다.

새마을청소년회의 전신(前身)인 4



◇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업인구 및 영농후계자의 장기적확보가 필요하다.

-H구락부의 경우가 조직목표의 불명, 조직성원의 무절제한 확대, 조직내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무절제한 나열등으로 원래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새마을청소년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책목표의 달성만으로 조직의 목표를 한정하고, 둘째 이 목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셋째 부실한 하부조직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 (나) 회원의 참여와 만족

활동적인 회원을 중심으로 회원개개인의 참여의식 고취와 청소년회단위의 우수청소년회 우선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농촌새마을운동에서 실시한 바 있는 등급제(等級制)가 필요하다. 우수청소년회원에게는 부락 상주농촌지도부 조요원으로 위촉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지도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대우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케 한다.

게다가 교육세 신설이 거론되는 요즘, 우선 농촌지역에서부터 중학교를 의무교육화하면 교육기관 때문에 도시로 빠져나가는 청소년에게 농촌에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이 된다.

#### (다) 지도인력 및 지도체제 개선방안

청소년회 활동이 비공식적 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지도교육담당자의 능력은 조직의 성과 즉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인 것이다. 지도공무원

들이 담당해야 할 일은 농촌청소년들을 직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더우기 현실적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서 농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일호봉제를 도입하여 봉급수준을 높여주고, 대농민(對農民) 교육활동을 위한 수당지급, 중요한 특기를 가진 지도공무원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도적 공무원을 확보한다. 지도체제에 있어서는 학교청소년회와 지역청소년회간의 산학협동(産學協同)체제가 필요하다.

#### (라) 교육내용과 활동의 개선방안

청소년회 활동은 곧 과제활동인바, 조직으로서 존속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와 구체적인 영농중심의 과제에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중 영농중심의 과제선정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고 회원들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영농과제는 개인별 과제뿐만 아니라 공동과제를 개발하여 회원들의 공동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과제활동 이외에도 새마을지도자연수교육과 같은 전국규모의 교육과 농고나 농업전문대학에 계절제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우수회원의 자질(資質)과 사기(士氣)를 높여주어야

한다.

(마) 교육지원과 활동을

위한 재정적 대책

영농후계자 육성기금(基金)과 같은 청소년회 자체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과제자금의 용자제도를 과제작물에 따른 용자시기와 회수시기를 고려하여 연 2-3회의 자금회전을 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궁극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자금 또는 토지대여(土地貸與)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사회적 분위기 개선안

청소년들이 하는 역할이나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될 수 있도록 자원지도자와 우수 청소년회원의 활동보고는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수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모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농민신문이나 농민제도잡지등을 통한 청소년회 활동소식의 전달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3. 앞으로의 방향

새마을청소년회를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즉 우선 도시로 빠져나갈 농업인구를 억제하고 앞으로 얼마동안 농업을 이끌고 갈 영농종사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영농의지나 영농후계자로서의 희망이 많은 청소년(주로 새마을청소년회원)에게 우선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국의 농업이 적은 수의 기업농(企業農)에 의해서 유지 또는 성장해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높은 차원의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업인구 및 영농자의 장기적 확보가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식량의 자급율이 떨어지고, 식량무기화시대에 따른 불안감이 점점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농후계자의 문제는 농촌청소년의 직업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청소년 자신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부모들도 권장할 수 있도록 첫째, 이들이 영위해야 할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여건과 둘째, 이들이 생활하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거주환경으로서의 농촌의 여건, 그리고 끝으로 농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나 사회적 태도의 형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